

전북대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대학 도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5일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사립학사지 주한모로코왕국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정기 부교육감,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 전북지역 대학 총장, 글로벌사업 추진 대학 총장, 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각 내빈들의 축사와 함께 양오봉 총장이 직접 글로벌사업의 세부 계획들을 발표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의 염원을 담은 비전선포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JUC(대학-산업도시) 트라이앵글 구축과 전북대 지원을 지역대학 및 학생에 전면 개방하는 등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 개최

지산학연 융합캠퍼스 조성·모집단위 광역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4가지 모델 제시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산·학·연 융합캠퍼스 조성 △모집단위 광역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폐교 캠퍼스 재생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학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팻바이오와 동물의학품 등 3개 거점의 지산학연 공동캠퍼스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00개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통해 5천여 명의 신규

고용을 달성해 지역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학생중심대학 실현을 위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학사구조 개편을 본격화 해 현재 106개 모집단위를 내년 45개 내외, 2028학년도에 25개 내외로 광역화할 계획이다. 학생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디그리 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국제캠퍼스(센터)에서 1년, 전북대에 3년을 수학하는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단기 방문 외국인 문화체험 확대,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복수학위제 실행 국가의 다양화 등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5천 명으로 늘려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남대 폐교 캠퍼스 재생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폐교 활용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 서남대 폐교 부지는 현재 남원시가 매입을 완료해 조만간 전북대로 관리 이전된다. 이후 전북대는 이곳에 글로벌캠퍼스를 만들어 K-컬처, K-비즈니스&이코노믹스 등의 외국인 전용 학과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

다. 또한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만들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남원의 특화산업인 관소리나 코스메틱, 전통목기, 드론산업 등의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도 만들어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대가 명실상부한 글로벌대학으로 발전하길 응원하며, 양오봉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지역 내 모든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해 대학중심의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이제는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 지역에서 일하게 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 상생 발전에 이연되야 한다”며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이 대학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제1차 유보통합

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 고공담에서 제1차 유보통합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세종·강원교육청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자치시도 만의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교육청별 특별법(유보통합)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8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와 시군 대응투자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시군 유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에 492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강연교육청은 유보통합 모델학교(교육청) 공모 개선점을, 세종교육청은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한 현안 파악 필요성을, 제주교육청은 유보통합 종합 추진계획 방향 및 일정 등을 소개하며 시·도간 보조를 맞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유보통합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꾸러졌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처한 어려움과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정보 공유와 특별법 공동 발발 등 상호 협력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배은주 교수

과기부장관 표창 수여받아

전북대학교 배은주 교수(약학대학)가 탁월한 연구 실적과 헌신적인 학회 봉사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배 교수는 제약 산업계를 거쳐 대학에서 당뇨병, 비만, 지방간질환과 같은 대사성질환의 병태생리를 연구하여 새로운 치료표적을 제시, 이러한 성과는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과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과 같은 최고 권위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됐다.

현재 대한약학회의 학술위원장으로 학회 발전과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바이오로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PAK4단백질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치료제 기술개발을 수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사제간 한마음, 77억 모금 달성에 힘 보태

김동근 교수회장-강현신 대표이사

전북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씩 기부

전북대학교 김동근 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과 동문인 강현신(썬미 소능력개발센터 대표이사)가 대



마음으로 강 동문과 뜻을 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현신 동문은 “모교 발전을 위한 평소 생각을 실현

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각각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4일 대학본부 총장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근 교수회장과 강현신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동근 교수회장은 “11억원을 출연한 운신군 수외대 동문의 강현신에게 큰 감동을 받아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대학발전은 몇몇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전북대가 글로벌대학으로 성취 성장하길 기대하며, 선배이자 동문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전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기금 및 대학경쟁력 향상기금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김 교수회장과 강 동문은 사제지간으로 지난해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에 김 교수회장이 100만원, 강 동문이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강 동문은 지난해 8월에도 학생들을 위해 쌀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5일 2층 강당에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본청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생명을 살려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직원 안전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2층 강당에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instill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 오후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진도 참여했다.

국민안전관리진흥원 전북지부 박해용 응급구조사가 강사로 나서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조별로 가상상황을 설정해 심폐소생술 예니 인형에 가슴압박 및 자동제세동기 작동 해법으로 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숙지해 일상생활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홍용 대학원장은 지난 24일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홍용 대학원장, 전주대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 홍용 대학원장은 지난 24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홍용 대학원장과 박진배 총장, 소현성 교무처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발전기금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전주대학교 60주년 대학사상 발전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와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홍용 대학원장은 “모교인 전주대학교를 위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대학의 지속적

인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해 주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학 사랑 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시작점이 돼 앞으로 더 많은 동문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 비전 실현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실행, 학생 성공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성중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

익산 남성중학교(교장 소병식)는 지난 24일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익산시의 사업 보조금을 통해 조성한 것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성환 익산교육감,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사업에 약 9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 친환경 인조 잔디 운동장과 모듈형 스포츠 플라스틱 바다재로 구성된 농구장, 육상 트랙 등이 조성됐다.

남성중학교는 이번 인조 잔디 운동장 개장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익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 ‘첫발’

전북자치도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TF팀 1차 회의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참조내(별관) 2회의실에서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은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제와 부안 등 도내 서부권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매년 증가 추세여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TF팀은 현장 교원, 장학사, 학부모, 지자체 및 직업재활시설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1차 협의회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사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TF팀 운영을 통해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